'전문성' 갖춘 전문도서관 드물다

대부분 자료원 수준에 그쳐… 정부의 적극 지원 필요

정보의 보관과 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전문도서관의 역할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도서관은 자료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서관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몇몇 뜻 있는 기업체의 주도 하에 설립된 사립 도서관들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체육부의 집계(1995년 1월 현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10,185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이중에서 전체의 4%에 달하는 409개관이 전문도서관이다. 전체의 89.6%에 달하는 학교도서관을 제외하면 공공도서관이 317개관, 대학도서관이 340개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도서관은 숫적인 면에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관리와 그 운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전문도서관의 필요성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곳은 기업체다. 실제로 전문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기아경제연구소 정보자료실'이나 '제일모직섬유연구소 정보자료실'처럼 기업체 산하에 관련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40%를 넘고 있다. '법무부도서실'이나 '산림청도서관'처럼 각 기관단체가 관련 자료를 수집,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까지 합하면 전체의 76%에 달하고 있어, 학문 증진이나 복지 차원의 전문도서관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나마 대부분이 자료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학문 진흥의 계기 마련

최근 여성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학 전문도서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여성학 관련 책과 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으며 전문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시설과 규모를 갖추고 있는 곳은 '한국여성개발원도서실'(원장 정세화)이다. 여성학을 중심으로 하여 정책, 법률, 교육, 가정 등 관련 자료와 연구 보고서, 국내외의 23,587권에 달하는 단행본과 400종에 달하는 정기 간행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UN을 비롯해서 국내외 여성 관련 단체들의 발간자료도 수집해놓고 있다. 또한, 1993년에 소장 단행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온라인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 연구에 필요한 연구보고서와 국내외 여성관련 자료를 아울러 정리해놓고 있어서 주제어 색인 및 검색 등의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이밖에도, 여자대학을 중심으로 관련 도서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규모면에서 자료실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표어린이도서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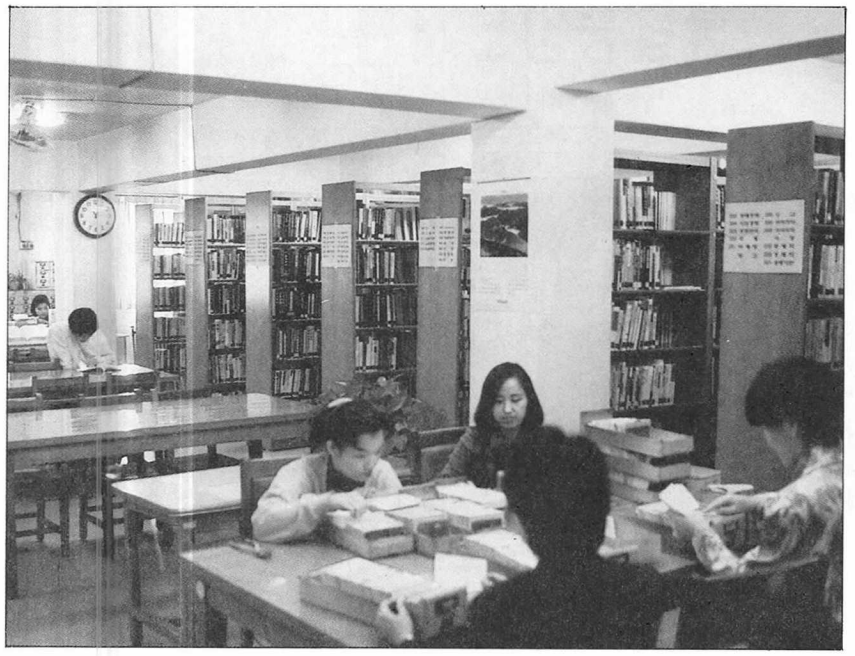
최근 동덕여대가 '여성학 전문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외국책 4백여종을 구입하여 지난달부터 교내 본관 5층에 부분 개관하고 있으나 내년 말에나 도서관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숙명여대는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자료실에 3천여종의 여성학 관련 도서를 갖추고 있으며 신분증을 맡기면 일반인에게도 대출을 해주고 있고, 이화여대는 도서관에 여성학실을 따로 마련하고 여성학 자료를 갖추고 있으나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민족문화추진회도서관'(회장 이우성)은 비록 규모면에서 여타에 비해 뒤지지만 나름의 개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전문도서관이다. 민족문화 창달을 기치로 내걸고 각종 문화사업을 벌여온 민족문화추진회가 운영하고 있는 이 도서관은 총 1만5천권에 달하는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데, 주로 한문서적으로 우리나라 고전에서부터 일서(日書), 중서(中書)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이처럼 한문도서가 많은 것은 민족문화추진회가 한문으로 쓰여진 책을 한글로 번역하는 사업을 장기간 해오는 과정에서 다량의 관련 책자를 수집했기 때문.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번역서도 일부 갖추고 있으며 일반인의 이용도 가능하다.

'한국사회과학도서관'(관장 이봉순)은 1983년에 개관하여, 자연과학 분야나 인문과학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오던 사회과학 분야의 학문 진흥에 적지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도서 16만여점과 마이크로 폼 7만2천점을 수집, 소장하고 있는데 사회과학 분야의 특성상 국내 자료와 영어권 자료가 대부분. 모든 자료실을 개가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정보서비스와 첨단 미디어를 갖추고 있어 정보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자료들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원하는 자료를 능률적으로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C통신을 통해 소장문헌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고, 인터넷과 디지털 등을 접속함으로써 세계 주요 대학도서관 문헌정보와 미 의회도서관 문헌정보 등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의 주요 CD롬 데이터베이스를 비치하여, 서지·색인은 물론이고 원문까지 동시에 찾아볼 수 있게 했고, 마이크로 폼 판독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이용자가 마이크로 폼에 수록된 원문을 직접 읽는 것이 가능하다.

소정의 복사비와 우송료만 내면 전국 어



여성개발원 도서실 (위). 사회과학도서관.

디서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우편·복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해외자료도 3주 안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매달 새로운 자료속보를 제작하여 회원 가입자들에게 우송하고 있으며, 일반 열람실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종교관련 도서관 상대적으로 많아

종교와 관련한 전문도서관은 여타의 경우에 비해 숫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분포를 보면 특정 종교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도서관 중에서 불교관련 전문도서관은 세 곳에 불과한데,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봉넝사소요삼장도서관'(관장 신해)만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나머지는 소장 자료가 크게 부족하거나 특정 항목에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아담한 2층 건물에 자리한 이 도서관은 92년 5월에 개관, 총 2만권 가량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몇몇 불교관련 대학도서관과는 달리 일반서적이 거의 없고 주로 대장경 등의 경전과 단행본으로 제작된 불서, 논문 자료 등 전문적 성격의 서적들만을 소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 승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데, 도서관 책임자인 신해 스님의 말에 따르면 조만간 일반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량의 불교관련 일반 서적들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독교는 여타 종교에 비해 다수의 전문도서관을 갖추고 있는데, 문화사업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교파가 저마다 자신들의 교리와 관련한 장서를 정리,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횃불도서관'(관장 신상우)은 규모나 성격 면에서 이들 모두를 대표하는 기독교 전문도서관의 면모를 보인다. 3천평 대지 위에 세워진 이 도서관은 고급스런 시설과 환경을 갖췄고, 기독교선교센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교파를 초월하여 기독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서적들을 소장하고 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4만권에 달하는 관련 단행본과 600종에 달하는 관련 잡지를 갖추고 있으며 이밖에 각 대학의 연구 논문과 자료집 등을 거의 모두 수집, 보관하고 있다.

복지 증진 꾀하는 전문도서관

'인표어린이도서관'(관장 정혜경)은 설립과 운영면에서 여타 도서관과는 다른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 본부와 분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다른 기관과 합동하여 도서관을 운영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복지관이나 시립도서관 등 다른 기관의 건물 내에 자료와 시설을 본부에서 지원, 설치하여 그 기관에 기증하고 그 이후에는 신간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지도 등을 담당하는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이같은 방식을 통해, 90년 5월 개관한 이래 분관의 수는 5년여만에 21개관으로 급증했다. 그 분포를 살펴보면, 상계동과 가양동 등의 서울 지역에서부터 인천, 대전, 부산, 태백, 전주 등 전국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 중국의 연길과 용정, 소련의 사할린 등지에도 세워져 2세들의 우리문화 교육에 일조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 도서관은 고유의 업무 이외에도 담당 사서들이 어린이들의 개별적인 독서지도와 소그룹의 독서모임을 장려하고 있으며, 각 분관마다 연간 3회 각종 행사를 벌인다. '책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동화구연대회' '독서퀴즈' '후속편 쓰기' 등 어린이들의 독서동기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대부분이며 '어머니 독서클럽' '동화책을 읽는 어른들의 모임'과 같은 특색있는 모임도 만들어 활성화하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이들 도서관은 어린이 놀이방의 역할까지 일부 담당하고 있는데, 어린이 문화가 부재한 현실을 극복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 근본 취지이다.

이처럼 복지증진 차원에서 운영되는 또다른 형태의 전문도서관으로 '이동도서관'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동도서관은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받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관장 이희영)으로, 2.5톤 도서관 특장차 28대를 구비하고 각 구별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각 차량별로 1만권 가량의 도서를 싣고 아파트촌 등의 인구 밀집 지역이나 도서관 혜택을 받기 힘든 지역 등에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문적 성격의 도서보다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 교양서적을 주로 소장하고 있다.

——한동림 기자